직업을 꼭 하나만 골라야 할까?

〈 4개의 직업을 가진 엔(N)잡러 이도원 〉

엄마이자 아내, 의대생, 유튜버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아기 엄마 이도원은 3번째 대학을 다니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이 의사였으나 수능 성적이 뒤받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국대 생물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 편입하였다. 밥 벌이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오고 가며 보이는 병원 간판들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의사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퇴사를 결정하고 바로 4개월간 의대를 준비하였다. 그녀의 절실함과 피나는 노력 끝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16학번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

그녀의 하루

아침부터 병원에 출근을 하기 전, 그녀는 아이를 위해 아침을 분주히 차린다. 7시에 병원에 도착하면 다양한 실습과 교수님들의 강의, 발표 준비, 콘퍼런스 참여와 회진 등을 한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면 육아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실습이 종료된 후 병원에 남아, 마저 하던 공부를 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엔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한 후, 밤늦게부터는 작가의 직업으로 출판사에 투고할 글을 작성한다고 한다.

유튜버와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녀는 자기 자신이 바쁜 일상 속에서 고립되었다고 느꼈기에 다른 누군가와 소통할 방법을 찾았다. 유튜브와 글쓰기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했다.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삶의 이야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느꼈기에 그녀는 의대생 생활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유튜브와 글 쓰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면 각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모두 꼭 자신이 선택한 학과라는 틀안에서만 직업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대학은 하나의 절차일 뿐,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의학계열의 학과를 선택해서 진학을 하더라도 꼭 의사, 간호사, 그리고 약사가 아닌 범죄심리학, 변호사 등의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다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어느 직업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다 해낼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글쓰기 등을 하고 있다. 다양한 직업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얻는 배움과 경험은 자기 자신을 더 성장하게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도전해보았으면 한다.

QUIZ

1. 이도원씨의 직업은 몇 개인가요?
2.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선 꼭 그에 알맞는 학과에 진학해야한다 (O/X)
3. 무조건 하나의 직업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O/X)

제 8호 드림레터 작성자 : 110410 황수현
제 8호 드림레터 편집자 : 110212 하수민, 110112 정세미